ORIGINAL ARTICLE

pISSN 1226-6396, eISSN 2234-4942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9;30(4):305-317
https://doi.org/10.7231/jon.2019.30.4.305

JON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한의학 치료 증진을 위한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 모델의 적용 – 국내 질적 연구 분석

김명희, 곽희용, 김종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방신경정신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신경정신과†

Application of Satir Transformation Systemic Therapy (STST) Model to Promote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 Analysis Domestic Qualitative Research Papers

Myung-Hee Kim, Hui-Yong Kwak, Jong-Woo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Neuropsychiatry, Gangdong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Received: November 18, 2019
Revised: December 2, 2019
Accepted: December 18, 2019

Correspondence to
Jong-Woo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892 Dongnam-ro, Gangdong-gu, Seoul, Korea.
Tel: +82-2-440-7134
Fax: +82-2-440-7287
E-mail: AROMAQI@khu.ac.k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omestic qualitative research papers of the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and sugges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t to Korean medicine counseling.

Methods: Domestic research papers were gathered by keywords 'Satire Counseling' or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and 'Qualitative Research' in RISS (http://www.riss.kr/), KISS (http://kiss.kstudy.com/), OASIS (http://oasis.kiom.re.kr/). The results were seven papers. Seven papers were selected based on grounded theory and case studies. Researchers analyzed the phenomena during the course of counseling to discuss the mechanism of the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and consider its applicability to Korean medicine psychotherapy.

Results: The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has three points: 'Self', 'Communication', and 'Family'. Positive changes such as 'Self-recovery', 'Consistent communication', and 'Recovery of relationships' are derived from these three points. And techniques such as iceberg exploration, family maps, three-members in a born family, and the family sculpture are also effective means.

Conclusions: The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is valuable in the clinical fields of Korean medicine counseling, especially relative to problems stemming from relationships.

Key Words: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Korean medicine psychotherapy, Qualitative research

Copyright ©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사티어변형체계치료(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Model: STST)는 미국 가족치료모델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였던 버지니아 사티어(Virginia Satir)가 개발하였다.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는 인간 개인의 심리 내면 구조에 대한 체계적 관점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양상인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점과 가족관계에 대한 체계적 관점을 가진다[1]. 이는 개인이 내면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기(중심-나)과 연결되어 심리 내면이 변화되도록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반복되는 역기능적인 패턴을 찾아 긍정적인 관계 맺는 방식으로 변화되도록 한다는 관점이다[2]. 그 결과 개인 심리 내면의 안정, 부부관계의 개선과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과 조부모를 포함한 확대가족에서의 원활한 소통의 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3,4]. 그 외에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는 친구, 학교, 직장 등의 전반적 사회적 관계의 개선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5].

가족 간의 갈등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화병과 같은 스트레스로 유발된 질환과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농촌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부모, 남편, 가족으로 인하여 화가 난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경우 화병이 존재할 확률이 1.5배에서 4.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러나 동시에 가족의 지지는 우울증 극복[7], 암 환자의 삶의 질[8], 나아가 자살의 예방[9]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 각자의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가부장제를 비롯한 확대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가족 위기', '가족 갈등'의 주제는 지배적인 담론[10]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의 임상에서 보는 환자 역시 부부, 부모, 자녀 등의 가족과의 갈등 관계를 비롯한 학교, 직장 등의 제반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부갈등으로 인한 화병의 환자는 한의학적 치료법과 함께 부부 상담이 병행되고 있는데[11,12], 부부 상담에서도 사티어변형체계치료에 기반한 상담이 국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 모델의 질적 연구논문 7편을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론은 연구대상자가 세상과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행위와 행위의 결정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보건과 의료 분야에서 주관적 건강문제에 대해 다룰 때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3].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장점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기술한 논문들을 분석하여 한의 임상에 적용할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의 개입요인과 연구참여자의 변화과정의 질적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의 개입요인과 연구 참여자의 변화과정을 도출하여 한의 임상에서의 적용방안을 알아보고자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의 질적 연구를 진행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사티어 상담 OR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 AND 질적연구를 키워드로 하여 2019년 10월 RISS (http://www.riss.kr/), KISS (http://kiss.kstudy.com/), OASIS (http://oasis.kiom.re.kr/)를 통하여 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 후 추출된 논문에 대하여 2인의 연구자가 함께 선정 및 배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의견이 다른 부분에서는 토의를 통한 합의로 논문을 선정하였다.

검색결과 논문의 게재 시기, 분석방법, 모집군 등 일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질적 연구의 메타분석의 방법 중 근거이론 방법[14]에 준하여 시행하고자 계획하였고, 3인의 연구자는 각각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질적 기술 및 해석을 분석하고, 이러한 질적 기술 중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모델의 핵심적인 개입 요인 및 변화과정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부분 중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졌고, 핵심적인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의 개입으로 평가되는 부분들을 요약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 모델이 연구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의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III. 결과

1. 논문 검색 결과(Fig. 1)

검색된 총 244편의 국내 발표된 논문 중 중복된 논문(38편),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모델에 대해 다루지 않은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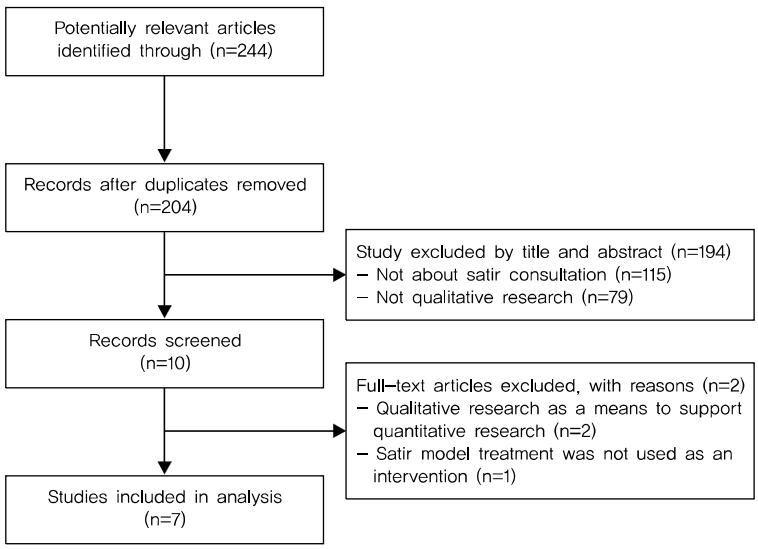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for study. selection. October, 2019.

(115편), 질적 연구가 아닌 논문(79편)을 제외하였으며,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 모델에 대해 다루었으나 상담의 결과를 보고한 질적 연구 논문이 아닌 경우(1편), 양적 연구의 근거를 위한 수단으로 질적 분석이 일부 가해진 논문(2편)의 경우 연구자의 합의에 따라 배제하였다. 이를 제외하고 총 7편의 연구가 선정되었다.

2. 분석 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성(Table 1)

분석 대상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표(Table 1)로 정리될 수 있다. 총 7편의 연구는 2007년 1편, 2011년 2편, 2013년 2편, 2014년 1편, 2015년 1편이 출판되었다. 2편이 국내 학술지에 실렸으며 3편은 석사 학위 논문, 2편은 박사 학위 논문에 해당하였다.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1건, 대학생 이성 커플과 부부 등 이성 관계에 대한 논문이 2건, 자존감에 관한 연구가 1건, 개인의 심리 내면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1건, 우울감에 대한 연구가 1건, 대인관계 부적응에 관한 연구가 1건이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20~22세의 여대생, 2개월 이상 지속적인 교제 중인 3~4학년의 대학생 이성 커플, 갈등을 겪고 있는 38~55세의 부부, 30~40대의 기혼 여성, 31~57세의 일반인 남/여, 우울감을 가진 여고생,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어려운 고등학생 등으로 다양하다(Table 1).

3. 선정 논문 분석

1) 일치적 의사소통으로의 변화과정

「사티어 의사소통 교육」에 참여한 간호대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변화 경험[5]에서는 참여자들이 제출한 '나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5개의 변화 관련 대주제와 16개의 경험 관련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5개의 변화 관련 대주제는 「자기만족감에서 조심스러움으로」, 「말하고 듣는 행위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동의에서 공감으로」, 「감정포장에서 감정표현으로」, 「상대방 탓에서 내 탓으로」이다.

「자기만족감에서 조심스러움으로」의 대주제는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것을 장점으로 평가하던 참여자가 말할 때의 주의점을 알게 되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과정에 대한 질적 기술이다.

「말하고 듣는 행위에서 이해하는 것으로」의 대주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사실은 '듣는 척' 하며 상대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어 '내 말을 주로 하는' 과정에 대한 질적 기술이다.

「동의에서 공감으로」의 대주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한 행위였고 '동의'가 되지 않거나 동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First author (Year)	Study aim	Sample size (M/F)	Age Mean (range)	Methodology	Participant Inclusion criteria	Satir method
Lim[5] (2013)	To learn if there has been a change in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s after Satir communication education	37 (0/37)	(20～22)	Ground theory method	2nd year nursing student taking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 classes	How to communicate with an iceberg
Um[15] (2007)	Observation of changes in the heterosexual couple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Satir group counseling program	8 (4/4)	24.4	Ground theory method	College heterosexual couples who have been in a relationship for more than 2 months	Exploration of 3 members in a born family, exploration of family rules of perceptual system in iceberg search, internal process of communication and family sculpture
Kim[16] (2014)	Application of the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model to identify couple's self-esteem, communication style, and accompanying adaptation	6 (3/3)	44.16 (34～55)	Ground theory method, Case study	Couples with inconsistent communication interactions	Analysis of a born family map, exploration of perceptual systems of iceberg awareness of the Interaction method of communication
Choi[17] (2011)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depression and fear of middle-aged female clients, and to examine the client's change after applying the born family system and iceberg search in the Satir transformation systemic therapy	3 (0/3)	(30～40)	Ground theory method, Case study	Women in their 30s and 40s who have low self-esteem in marriage and suffer a general crisis of middle-aged women	Satir meditation, family map analysis, iceberg search, wheel of influence, family sculpture, family reconstruction, 3 members in a born family
Ko[18] (2013)	What is the process of change for clients who have experienced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The sub-study question is 'How is the process of change experienced by the client?' & What is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psychological change that the client experiences?	12 (5/7)	40.6	Ground theory method, Case study	Clients consulted by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ist Iceberg search techniques, resource discovery, interaction pattern analysis, self acceptance	Satir meditation, family map analysis, iceberg search, wheel of influence, family sculpture, family reconstruction, 3 members in a born family
Bae[19] (2011)	What factors in iceberg affected the depression of high school girls in adolescence?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satir therapy that have affected the decrease and change of depression in high school girls?	3 (0/3)	18.3	Ground theory method, Case study	Clients consulted by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ist Iceberg search techniques, resource discovery, interaction pattern analysis, self acceptance	Clients consulted by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ist Iceberg search techniques, resource discovery, interaction pattern analysis, self acceptance
Kim[20] (2015)	What factors in iceberg affected the depression of high school girls in adolescence?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Satir therapy that have affected the decrease and change of depression in high school girls?	4 (3/1)	18.25	Ground theory method, Case study	High school girl complaining of depression or taking neuropsychiatric medication to confirm	Satire meditation, born family system analysis, iceberg search (by session), family reconstruction by family sculpture

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는 과정에 대한 질적 기술이다.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와 잘 듣기 위한 '좋은 경청'을 하며 '진심으로 반응한' 결과 '공감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감정포장에서 감정표현으로」의 대주제는 참여자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부정적 감정'은 숨겨야 했고 윗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는 더욱 '눈치를 보며', '감정 숨기기'를 하였는데 친구 관계에서는 비교적 '부정적 감정을 표현'도 하는 과정에 대한 질적 기술이다.

「상대방 탓에서 내 탓으로」의 대주제는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 오해한 '내 맘대로 해석하기'가 의사소통의 주요 문제요인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낮은 자존감으로 비난받는 듯한' 것이 「내 탓으로」 '자존감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과정에 대한 질적 기술이다.

2) 대학생 이성 커플의 변화과정

Satir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대학생 이성 커플의 변화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15]에서는 커플 상호 간에 공통적으로 경험한 변화과정으로 최종적으로 5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그 하위구성요소는 9개가 도출되었다. 즉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삼인군(三人群, 부모와 나와의 관계양상) 경험이 이성관계에 미친 영향 자각(삼각화, 가족규칙, 의사소통)', '변화 전 혼돈(두려움, 혼란, 불안)', '파트너의 새로운 모습 이해', '자기 및 파트너 수용', '파트너 변화가 자신의 변화에 미친 영향'이다.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이성관계에 미친 영향 자각(삼각화, 가족규칙, 의사소통)'은 부모와의 삼각화, 가족 규칙, 의사소통 경험이 파트너에게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커플들이 자각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질적 기술이다.

'변화 전 혼돈(두려움, 혼란, 불안)'은 두려움, 혼란, 불안 등의 심리상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커플들은 전 단계의 작업으로 두렵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혼돈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질적 기술이다.

'파트너의 새로운 모습 이해'는 커플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파트너의 새로운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이해가 되어 관계가 변화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질적 기술이다.

'자기 및 파트너 수용'은 커플들이 자신과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변화의 과정에 대한 질적 기술이다.

'파트너 변화가 자신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커플들이 파트너의 변화로 자신도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질적 기술이다.

3) 부부상담에서의 변화과정

비일치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에 대한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모델의 적용 연구[16]에서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모델에서 구분하고 있는 7단계 변화과정과 부부관계 진단영역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진행 틀로 재구성하여 질적 관찰을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수집한 질적 자료들은 부부 각자의 가족지도 분석, 빙산의 지각체계 탐색, 상호작용 방식을 분석하여 구체화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치료적 관계 형성 및 호소문제의 탐색의 단계', '자각과 인식의 단계', '변화와 성장의 단계',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단계', '뿌리내리기 단계'로 부부에 대한 변화과정의 5단계의 질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치료적 관계 형성 및 호소문제의 탐색의 단계'는 치료사가 부부와 공감적 접촉으로 라포를 형성하며 부부의 호소문제를 탐색하여 찾아내는 과정의 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단계이다.

'자각과 인식의 단계'는 결혼 동기, 부부의 상호작용 패턴, 가치관, 가족 규칙, 재정과 양육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인식하는 과정의 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단계이다.

'변화와 성장의 단계'는 부부 각자의 성장과정에서의 가족으로부터의 미해결 문제,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반복적인 걸림돌, 부부 각자의 비합리적 신념, 현재 가족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다루어, 부부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단계이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단계'는 자신과 배우자의 빙산 내면 이해하기,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 연습하기, 갈등상황에 대해 문제 해결하기 등으로 더 나은 선택에 대한 과정의 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단계이다.

'뿌리내리기 단계'는 자신과 배우자를 수용하고 부부가 서로 심리 내적으로 연결되기, 친밀감 회복하기, 현재와 미래에서 삶의 의미 발견하기로 상담을 마무리하는 과정의 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단계이다.

4) 30~40대 여성의 우울감 변화과정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를 적용한 개인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질적 연구[17] 에서는 30~40대 여성 참여자 3명을 대상으로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를 적용하여 30~40대 여성의 우울감의 요인과 이에 대해 효과적인 사티어변형체계 치료의 요인들을 보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우울감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엄격한 규칙,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사소통, 아버지의 무관심, 부모와의 관계에서(삼인군 三人群:부모와 나와의 관계양상) 어느 한쪽과의 지나친 밀착 등의 공통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참여자의 우울감이 줄어들고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의 개입 요인은 '긍정적 자원의 발견', '성장과정에서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재구조화', '일치적 의사소통의 경험'이었다.

'긍정적 자원의 발견'의 단계는 내담자의 따듯함, 유능감, 돌봄, 성실함, 배려심 등의 긍정적인 자원을 빙산메타포의 열망의 차원에서 발견하여 자기(중심-나)와 연결되어 회복되는 과정이다.

'성장과정에서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재구조화'의 단계는 내담자가 아이였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과거의 주변 상황과 부모에 대해, 내담자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객관화하면서 성장과정에서의 가족으로부터의 미해결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 편안함과 자존감의 향상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보고되었다.

'일치적 의사소통의 경험'의 단계는 내담자가 치료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일치적 의사소통의 경험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을 얻는 과정이었다.

5) 개인 심리구조의 변화과정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를 경험한 내담자의 변화과정 연구[18]에서는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를 개인상담으로 경험한 12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 심리구조의 변화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빙산탐색, 자원 발견하기, 과거 재구성 등의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의 기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적 특성을 추출할 수 있었다. '정체 상태', '나를 돌아보기',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를 자각하기', '나와 화해하기', '자기를 회복하기', '나를 확장하기', '새로운 항상성의 상태'의 7단계 심리내적 변화의 내용 및 구조라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러한 7단계가 나선형의 모양으로 순환, 반복되며 일치성이라는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정체 상태'는 연구 참여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비난'과 '타인 비난'을 반복하는 양가감정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원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질적 기술이다.

'나를 돌아보기'는 타인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타인의 변화를 바라던 참여자들이 치료사의 개입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직선적 인과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순환적 인과관계로 전환되어 변화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질적 기술이다.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를 자각하기'는 참여자가 나와 가족의 상호작용을 자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작동되고 있는 과거의 영향을 통찰하고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질적 기술이다.

'나와 화해하기'는 참여자가 과거를 이전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재경험함으로써 과거를 수용하고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되어 위축되었던 '자기(중심-나)'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질적 기술이다.

'자기(중심-나)를 회복하기'는 참여자가 자신의 다양한 부분들을 통합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생명력이며 존재의 본질인 '자기'(중심-나)를 만나 내면의 힘을 회복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질적 기술이다.

'나를 확장하기'는 '자기(중심-나)'를 회복한 참여자들이 자신을 확장해서 내면의 일치성과 표현의 일치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장해 나가는 상태에 대한 질적 기술이다.

'새로운 항상성 상태'는 참여자들이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 열망을 충족하는 주도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동시에 '다시 타인을 향하여' 관계 맺는 삶을 지향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질적 기술이다.

6) 우울감을 가진 여고생의 변화과정

우울감을 가진 여고생에 대한 사티어 변형 체계적 치료의 질적 연구[19]에서는 청소년기 여고생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 빙산메타포의 영역과 여고생의 우울감이 줄어들고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의 개입 요인에 대해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청소년기에 있는 여고생의 우

울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빙산메타포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무력감, 외로움, 우울함, 서글픔, 소외감과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초라함, 불쌍함 등을 느끼는 위축된 '자기(중심-나)'에 대한 경험이었다. 참여자들의 우울감의 기저에는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무력감, 죄책감, 외로움, 속상함, 슬픔, 비참함 등의 감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비일치적 의사소통, 친밀감이 결여된 가족 등이 있었다.

여학생의 우울감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친 사티어변형체계의 치료적 요인은 '사티어 명상', '의사소통의 패턴의 변화', '기대와 열망 찾기', '공감과 지지', '가족 재구조화'의 5개의 질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상담을 시작할 때 '사티어 명상(사티어명상록[20]의 한 부분을 치료사와 참여자가 함께 읽으며 진행)'을 시행하여 치료사와 연구 참여자의 빠른 라포형성이 이루어졌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담자는 우울감 등의 부정적 감정과 깊은 상처도 쉽게 개방하게 되었다.

참여자가 가족들과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일치적 의사소통으로 '의사소통의 패턴의 변화'로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빙산 탐색을 통해 자신의 '기대와 열망', 가족의 기대와 열망도 찾게 되어 인간의 보편적인 열망 차원에서 가족을 이해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빙산메타포의 지각체계 영역에서 경직된 부정적인 신념을 해결하고 감정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자기(중심-나)가 향상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가족조각기법으로 자신과 가족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 재구조화'를 통해 가족에 대한 분노와 원망 등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7) 대인관계 부적응 청소년의 변화과정

사티어변형체계치료의 적용 연구[21]에서는 대인관계 부적응의 청소년들 참여자들의 특성과 사티어변형체계치료에서 대인관계 부적응 청소년의 변화를 위한 개입 요인과 사티어변형체계치료를 경험한 대인관계 부적응 청소년의 변화 결과에 대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분석한 결과 '집단 따돌림 경험', '역기능적 양육방식',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낮은 자존감'의 질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집단 따돌림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되게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에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폭력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집단 따돌림의 경험'으로 참여자들은 많이 위축되어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으로 친구와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 과잉보호, 지나친 통제 등 '역기능적 양육방식'과 자녀를 다그치고, 혼내고, 화내는 일방적인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참여자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비난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를 위한 개입 요인에서는 '진단과 가설 세우기'[22], '자존감 향상', '일치성 향상', '가족 역동 변화', '뿌리내리기'[21]의 5단계의 질적 과정을 도출하였다.

'진단과 가설 세우기'의 단계는 치료사가 참여자의 호소문제에 대해 빙산탐색사티어변형체계적 치료에서 호소증상인 대인관계의 부적응에 대해 빙산탐색, 상호작용 방식, 가족지도 분석으로 문제의 요인을 진단하고 호소증상의 요인에 대해 가설을 세우며 이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상담의 치료 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이다.

'자존감 향상'의 단계는 참여자가 빙산메타포의 지각체계 영역에서 자신과 타인이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되는 과정과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게 하여 참여자의 자존감이 향상되는 과정으로 기술되었다.

참여자는 빙산메타포의 감정영역에서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고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내면을 일치적 의사소통으로 표현하여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치성 향상'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치료사는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와 경계선, 자녀와의 일치적 의사소통,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이해를 교육하였고, 부모와 청소년 참여자와는 삼인군작업(부모와 청소년)으로 가족조각기법으로 가족재구조화, 적절한 가족규칙을 찾아 '가족역동이 변화'되도록 하였다.

추후 상담에서는 치료사가 청소년 참여자의 심리 내면과 학교에서 대인관계의 변화를 점검하고 자기만달라기법으로 참여자 내면의 심리적 자원의 균형과 조화를 확인하고 지지

하는 '뿌리내리기'를 시행하였다.

사티어변형체계치료를 경험한 대인관계 부적응 청소년의 변화 결과 '개인 내면 빙산의 변화', '자존감 향상', '가족역동의 변화', '새로운 선택'의 질적 변화를 도출하였다.

청소년 참여자는 빙산메타포의 각 영역에서 유연한 신념, 긍정적 감정, 자신에 대한 적절한 기대, 편안한 상태의 '자기(중심-나)'로의 변화하는 '개인 내면 빙산의 변화'를 보였다.

참여자는 이러한 편안한 상태의 '자기(중심-나)'로 '자존감 향상'을 하게 되며 자신의 가치관만이 옳다는 신념에서 자신과 타인의 가치관의 차이를 수용하게 되는 변화, 친구들과 적절한 경계선에서 자신을 일치적으로 표현하여 상호작용이 변화하게 되었다.

부모와 참여자는 삼인군 작업에서 가족조각기법으로 가족재구조화를 하여 '가족역동의 변화'를 하게 되었고, 참여자는 부모에게서 자신이 바라는 부모에 대한 기대를 채우려 하기보다 새로운 친구들과 소속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부모가 정해준 진로와 미래에서 참여자가 스스로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학을 선택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 질적연구 분석 결과의 종합

총 7편의 논문은 의사소통 집단교육, 커플들의 집단상담, 부부의 집단상담, 개인 상담에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를 적용하여 부부갈등, 우울감, 대인관계 부적응 등의 요인과 변화과정, 변화결과에 대해 질적 분석한 연구이다.

1)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의 질적연구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일치적 의사소통으로의 변화과정에서는 「자기만족감에서 조심스러움으로」, 「말하고 듣는 행위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동의에서 공감으로」, 「감정포장에서 감정표현으로」, 「상대방 탓에서 내 탓으로」의 질적 자료를 도출하였다.

대학생 이성 커플의 변화과정에서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삼인군(三人群, 부모와 나와의 관계양상) 경험이 이성관계에 미친 영향 자각', '변화 전 혼돈', '파트너의 새로운 모습 이해', '자기 및 파트너 수용', '파트너 변화가 자신의 변화에 미친 영향'의 질적 결과를 찾아내었다.

부부 상담에서의 변화과정에서는 '치료적 관계 형성 및 호소문제의 탐색의 단계', '자각과 인식의 단계', '변화와 성장의 단계',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단계', '뿌리내리기 단계'로 부부에 대한 변화과정의 5단계의 질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30~40대 여성의 우울감 변화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우울감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엄격한 규칙,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사소통, 아버지의 무관심, 부모와의 관계에서(삼인군 三人群:부모와 나와의 관계양상) 어느 한쪽과의 지나친 밀착 등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의 우울감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한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의 개입요인은 '긍정적 자원의 발견', '성장 과정에서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재구조화', '일치적 의사소통의 경험'이었다.

개인 심리구조의 변화과정에서는 '정체 상태', '나를 돌아보기',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를 자각하기', '나와 화해하기', '자기를 회복하기', '나를 확장하기', '새로운 항상성의 상태'의 7단계 심리 내적 변화의 내용과 구조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울감을 가진 여고생의 변화과정에서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빙산메타포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무력감, 외로움, 우울함, 서글픔, 소외감과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초라함, 불쌍함 등을 느끼는 위축된 '자기(중심-나)'에 대한 경험이었다. 여고생의 우울감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친 사티어변형체계의 치료적 요인은 '사티어 명상',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패턴의 변화', '기대와 열망 찾기', '공감과 지지', '가족 재구조화'의 5개의 질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대인관계 부적응 청소년의 변화과정에서는 청소년들 참여자들의 특성과 사티어변형체계치료에서 청소년의 변화를 위한 개입 요인과 변화 결과에 대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분석한 결과 '집단 따돌림 경험', '역기능적 양육방식',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낮은 자존감'의 질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를 위한 개입 과정에서는 '진단과 가설 세우기'[21], '자존감 향상', '일치성 향상', '가족 역동 변화', '뿌리내리기'[22]의 5단계의 질적 과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개인 내면 빙산의 변화', '자존감 향상', '가족역동의 변화', '새로운 선택'의 질적 변화를 도출하였다.

2)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 모델은 개인, 상호작용, 가족에 대한 체계적 관점을 가진다[1]. 앞서 분석된 7편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질적 기술들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체계적 관점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연구자들은 합의하여 사티어체계적치료 모델의 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반응으로 질적 공통점의 요인을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1) 개인에 대한 체계적 관점

개인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심리 내면을 행동, 감정, 지각, 기대, 열망, 자기라는 영역의 빙산메타포로 보았다[23]. 5) 개인 심리구조의 변화과정과 7) 대인관계 부적응 청소년의 변화과정에서 질적 과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빙산탐색기법과 가족조각기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참여자들은 자기 비난과 타인 비난의 '정체상태'에 빠져 있었고[18] 스스로에 대한 비난으로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었고 자신감의 상실과 대인관계에서 두려움[20]이 나타나게 되었다.

치료사는 연구참여자에게 사티어변형체계적 치료에서 가족조각기법을 적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작동되고 있었던 과거로부터의 가족의 영향을 통찰하고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를 자각하기'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담과정을 통해 참여자 심리 내면의 빙산메타포 지각체계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치료사는 참여자에게 가족조각기법을 이용한 가족재구조화를 적용하여 과거의 경험을 이전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재경험하도록 하여, 참여자가 과거의 경험을 수용하고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되는 '나와 화해하기'[18]를 통해 빙산메타포의 열망의 영역에서 변화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가 빙산메타포의 기대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되는 '자존감 향상'[20]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참여자가 빙산메타포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존재의 본질인 '자기(중심-나)'를 만나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자기(중심-나)를 회복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타인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나를 확장하기'로 나아가며 다양한 '새로운 선택'의 변화를 하게 되었다.

(2)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점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맺는 방식이 문제라고 보았다. 이는 반복적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계 맺는 방식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며, 2) 대학생 이성 커플의 변화과정과 3) 부부상담에서의 변화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겠다. 각자의 빙산메타포에서의 지각체계 영역의 탐색기법과 일치적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부부의 상호작용 과정을 살펴보면, 어릴 적부터 배운 부모와의 관계 맺음의 방식을 배우자에게 반복하여 사용한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삼인군 경험이 배우자에게 미친 영향 자각'을 하게 되었고 '변화 전 혼돈'의 상태에서 두려움, 혼란,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이들은 부부 상담에서 각자의 결혼 동기, 가족 규칙, 두 사람이 관계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 가치관, 재정과 양육 등의 현실적 문제를 파악하는 '자각과 인식의 단계'를 빙산메타포의 지각체계 영역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이해의 단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부부 각자는 자신과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자기 및 배우자 수용'과 부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과정'과 갈등 해결에 대해 '더 나은 선택'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두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인 상호작용에서는 일치적 의사소통(자신의 내면을 빙산메타포의 각 영역에 의거하여 말하기,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기)이 매우 중요하다. 1) 일치적 의사소통으로의 변화과정에서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들을 때는 「이해」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좋은 경청'과 '진심으로 반응'하는 태도의 「공감」으로 하고 '부정적 감정'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감정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가족에 대한 체계적 관점

가족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서는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증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체계가 문제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였다[1]. 4) 30~40대 여성의 우울감의 변화과정과 6) 우울감을 가진 여고생의 변화과정[16,18]에서 이러한 과정을 찾아볼 수 있겠다. 주로 빙산탐색의 감정영역의 탐색, 긍정적 자원 찾기와 가족조각기법으로 가족재구조화가 사용되었다.

우울감의 참여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엄격한 규칙, 강압적인 의사소통, 부모 중 한 명편중된 삼인군 관계 등의 공통적인 양상이 나타났고 빙산메타포의 감정 영역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무력감, 외로움, 슬픔, 비참함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상담을 시작할 때 '사티어 명상'으로 참여자는 편안한 상태에서 따듯함, 유능함, 배려심 등의 자신 내면의 자원을 빙산메타포의 열망의 차원에서 발견하는 '긍정적 자원의 발견'을 하였다. 참여자는 빙산탐색기법을 통해 자신의 '기대와 열망', 가족의 기대와 열망도 찾게 되어 인간의 보편적인 열망 차원에서 가족을 이해하게 되었고, 빙산메타포의 감정영역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자기(중심-나)가 향상되었다. 참여자들은 가족조각기법으로 자신과 가족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 재구조화'를 통해 아이였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부모에 대해 객관화하여 수용하면서 과거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치료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일치적 의사소통을 경험'하여 '의사소통 패턴을 변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체계적 관점과 그에 기반한 사티어변형체계적 치료는 끊임없이 세 가지 체계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담자를 회복의 과정을 겪게 하였다.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를 경험한 내담자의 변화과정 연구[18]에서 보듯이 참여자는 자신의 심리 내면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자기를 회복'하게 되었다. Satir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대학생 이성커플의 변화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15]에서 성장과정에서의 부모와의 삼인군의 경험이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인식하고 '자기 및 파트너를 수용'하는 상호작용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를 적용한 개인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질적 연구[17]에서 우울감의 중년의 여성 참여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원가족에서의 미해결 문제를 극복하는 '원가족에 대한 인식의 재구조화'를 통해 '가족 역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울감이 줄어들게 되었다.

사티어변형체계적 치료에 대한 질적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개인, 상호작용, 체계적 관점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Ⅳ. 고찰

1.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 모델의 소개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는 개인에 대한 체계적 관점과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점과 가족에 대한 체계적 관점을 가지며[1] 이를 종합하여 '자기(중심-나)'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치료 모델이다. 개인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심리 내적 구조를 빙산메타포에 비유하여 설명하였고,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 맺는 대처방식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고 가족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가족구성원들의 관계와 역동을 가족지도를 작성하여 파악하였다. 이러한 빙산메타포 탐색과 대처방식의 유형과 가족지도의 작성을 통해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에서는 고통을 받는 개인과 가족체계의 문제를 개인, 상호작용, 가족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에서는 개인과 가족체계의 문제에 대해 문제의 요인을 진단하고 가설과 치료계획을 세워서 개인과 가족체계가 변화되도록 하는 상담기법을 시행하게 된다.

1) 빙산메타포[23]

사티어는 인간 개인을 빙산으로 비유하였는데 말과 행동과 신체의 반응의 영역과 감정, 감정에 대한 감정, 지각, 지각에 대한 지각, 기대, 열망, 자기(중심-나)의 영역으로 표현하였다.

2) 대처방식의 유형[22]

사티어는 비일치적 의사소통 방식을 몇몇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상대를 비난하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비난형,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회유형,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나를 지키려는 초이성형, 불안이 높아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피해버림으로써 나를 지키려는 부적절형으로 분류하였다.

3) 가족지도[22]

치료과정 초기에 작성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역동과 조부모와 부모 등의 세대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패턴을 쉽게 파악하게 한다.

4) 자기(중심-나)[22]

사티어는 자기(중심-나)는 '우주적 생명력, 우주적 영성, 모든 존재의 본질, 정신 등이 나라는 개체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라고 하였다[24]. 이러한 자기(중심-나)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존재를 넘어서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측

은지심, 충만한 은혜, 자비로움, 호기심, 희망, 감사함, 돌봄과 배려, 공감, 창조성, 자기(중심-나)의 실현 등의 열망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2. 한의학의 치료요법

한의학은 황제내경을 통하여 인체와 자연의 조화를 논하는 천인상응(天人相應)[25]을 말하였고, 동의보감을 통하여 정기신(精氣神) 삼보(三寶) 사상[26]에서 정신과 육체의 조화에 대해 강조 하였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환자의 간기울결(肝氣鬱結), 울구화화(鬱久化火)등의 변증과 신체화증상이 동반되는 화병으로 접근[27]하였다.

고전적 치료법으로는 이정변기요법, 지언고론요법, 경자평지요법, 오지상승요법으로 정신과 신체를 치료하였다. 상고시대 사용한 축유(祝由)요법 이후에 나타난 이정변기요법에서는 기와 정을 다스림으로써 치신(治神)의 효능을 거두게 되는 신형일체의 한의학의 정신생리특징을 반영하였다. 이정변기요법의 작용기전은 주로 이지계모(理智計謨)의 방법으로 환자의 기분전환을 통한 감정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약물치료를 통해 신의 물질적 기초인 오장육부의 기혈과정을 굳건히 하는 데 있다[28]. 한의 임상에서 이러한 이정변기요법의 환자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치료에 사티어체계적 치료에서의 개인, 상호작용, 가족체계의 체계적 관점에서의 변화 과정을 도입하면 축유요법 이후에 이정변기요법이 나타나게 된 것과 같이 한의학의 이정변기요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한의학과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 모델

사티어변형체계적치료는 인간 개인의 심리 내면에 대한 체계적 관점과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점과 가족에 대한 체계적 관점을 가지며[1] 이를 통합하여 '자기(중심-나)'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치료 모델이다. 빙산메타포의 중심에 있는 '자기(중심-나)'의 회복을 목표로 하며 회복된 '자기(중심-나)'의 생명력이 내담자의 심리적 증상을 극복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는 데 한의학의 '이도료병(以道療病: 자신의 하늘, 즉 영성으로써 하늘의 이치와 합함이 점차 쌓이면 마음과 성품이 화평해지고 모든 것이 공(空)이요 무상(無常), 무아(無我)임을 알게 되는데 이는 곧 명상의 치유이다[29])', '허심합도(虛心合道:무심으로 도와 합하고 도와 합하게 되면 무아의 이치, 공의 이치를 알고, 이치를 알면 마음이 청정해져 자연히 병이 낫는다[29])'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티어변형체계적 치료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동기가 있으며 지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고 현재 내담자의 어려움에 대해 내담자만큼 많은 고민과 절실하게 깊은 생각을 한 사람은 없다고 본다[18]. 내담자는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으며 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사티어변형체계적 치료로써 내담자의 자각, 통찰, 변화의 의지를 도울 뿐이며 그 과정에서 내담자는 성장, 발전하여 본래의 생명력인 '자기(중심-나)'를 찾아가게 된다[18]. 이는 생명력을 존중하는 한의학에서 '天人相應'의 생명관과 일맥상통하며,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면에서 한의학 임상현장에서 적용되는 철학 상담과 상응하는 면이 발생한다[30].

결과 분석에서 개인, 상호작용, 가족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 따라 사티어체계적치료 모델의 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반응으로 변화의 질적 과정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추출한 변화요인과 변화과정의 질적 자료를 이정변기요법으로 흡수하고 통합하여, 임상에서 개인, 부부, 만성 우울증 등의 환자에게 적용할 때 유의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한의학 상담에서 적용하기 위해 사티어변형체계적 질적 연구에서 추출한 질적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간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서는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를 자각하기', '공감과 지지', '나와 화해하기'의 과정을 통하여 '자존감 향상', '자기(Self)를 회복하기', '새로운 항상성의 상태'로 나아가는 의 질적 변화 과정을 도출하였다.

2.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서는 '변화 전 혼돈' 상태 에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자각', '자각과 인식의 단계', '자기 및 배우자 수용' 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단계'로 향하는 질적 변화 과정을 도출하였다.

3. 가족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서는 '긍정적 자원의 발견', '원가족에 대한 인식의 재구조화', '공감과 지지'를 통하여 '일치적 의사소통의 경험', '가족 역동의 변화'로 나아가는 질

적 변화 과정을 도출하였다.

4.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는 말할 때는「조심스럽게」「감정표현」을 하며, 들을 때는「이해」와「공감」으로 하고 '부정적 감정'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감정표현」을 하게 되는 질적 변화 과정이 도출되었다.

5. 이와 같은 사티어변형체계기법은 부적응적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내원하는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의 환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와 병행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M. P.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 5th edition (Kim YE, Kim JT, Shim HS, Je SB). Seoul: sigmapress. 2015: 488.
2. Choi YS. A Group Therapy Program for Couples: Integrating Satir's Growth Model and the Non-Violent Communication Model. Family and Family therapy. 2010;18(1):131-56.
3. Lee JY.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Using Satir's Growth Model on Female single Parents' Unity and Communication Improvement. Dongkwang. 2009;105: 147-214.
4. Park EY.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Patter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fter'Satir Communication Education'.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3;19(2):151-62.
5. Min SJ, Lyu YS. A Case of Couple Therapy in Oriental Medical Psychotherapy.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3;14(2):169-81.
6. Park JY. Prevalence and Related Factors of Hwabyung for the Aged Woman in Rural Communit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04;18(2):234-42.
7. The Effect of Hope and Family Support of Depressed Patients to their Resilienc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0:91.
8. Kim KD, Chung BY, Byun HS.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ancer. Kor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2009;9(1):52-9.
9. Kim JK. The Effects of Life Stress on University Student`s Suicide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Pathway of Family and Friend`s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y. 21(1):167-89.
10. Kim HY. Ma KH. Lee YS. Cho YM. Ham IH. Hwang JM. Realities and Changes in Korean Famil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2004;27:340.
11. Kim SW, Kim JW, Lee DH, Koo BS. A Clinical Report of the Patient Appealed Various Somatization Symptoms by Marital Conflict.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3;24(4): 411-8.
12. Kang HW. Approach for The Couple Therapy in Oriental Psychotherapy.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1; 22(3):87-100.
13. J, Cho JJ. Use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e Field of Health. J Korean Acad Fam Med. 2008;29:553-62.
14. T H. Kearney. Focus on Qualitative Methods Ready-to-Wear: Discovering Grounded Formal Theor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998;21:179-86.
15. Eom HJ. Qualitative analysis on the changeing process of the heterosexual college students' couples in Satir group counseling program.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07;12(3):109-47.
16. Kim SM.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for Couples with Marital Conflicts due to Incongruent Communication (Master's thesis). Dankook Univ. 2014:141.
17. Choi JT. The Qualitative Study of Self-Esteem Improvement Applying the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for Middle-Aged Women-(Master's thesi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1:261.
18. Ko YS. Clients' intrapsychic change process who experienced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 of Korea. 2013:210.
19. Bae JH. The Qualitative Study of Applying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of Depressed High School Girls (Master's thesi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1:145.
20. John Banmen. Meditations of Virginia Satir. (Kim YA. Trans.) Seoul:Kim Young-ae Family Therapy Research Institute. 2011;182.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21. Kim KO. The study of sta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 on adolescence with relationship maladjustment problems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 2015:216.
22. Kim YA. An Integrative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Seoul:Kim Young-ae Family Therapy Research Institute. 2011;425.
23. Kim YA. Satir Iceberg Communication. Seoul:Kim Young-ae Family Therapy Research Institute. 2012:389.
24. Satir V. The New Peoplemaking,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1988:400.
25. Hong WS. The Yellow Emperor's classic of medicine. Seoul: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2012:549.
26. Heo J. Donguibogam. Academic Literature Laboratory of Eastern medicine(Translated). Seoul: Bubin publishes. 2017:2604.
27. Kim JW, Hwang WW. "HWABYUNG" in the view of Oriental Medicine. J of Oreintal Neuropsychiatry. 1994;5(1):9-15.
28. Lyu YS, Min SJ, Kim TH, Kang HW. A Reveiw of the Traditional Concepts of Pyschologic Therapy in Oriental Medicine-specially ablut Li-Gyeung-Byun-Qi Therapy-.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1;12(1):3-10.
29. Jung HJ. Spirit of Body-Mind and Meditative Healing of Self-Training In Donguibogam. Korean History of Education. 2014;36(1):211-34.

30. Kim JW, Kwak HY, Chung SY. Philosophical Counseling in the Clinical Field of Korean Medicine: Applicaition and Case Analysis. J of Oreintal Neuropsychiatry. 2019:30(3): 119-28.